

예배 순서

예배의 부름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이 즐겁고 희망찬 날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상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 이**

목 도 **시 118: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송가 550장

찬 송

1절 :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던 이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절 :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다 같 이**

3절 :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절 : 땅들이 바다야 많은 섬들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 시 교 독 **새 해** **다 같 이**

인도자 : 주께서 옛적에 당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회 중 :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인도자 :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회 중 :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인도자 :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회 중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인도자 :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회 중 :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도자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회 중 :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도자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같이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 도 **가 족 중**

새로운 일을 이룩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 가족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상들의 교훈과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생활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끼리 우애하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는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회 각 분야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로 불안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도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잠언 16편 16~19절 인 도 자

16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17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 씀 '이렇게 삽시다' 인 도 자

우리 옛 어른들은 설날이 오면 조상을 생각하며 그 은덕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냈으며, 또 어른들께 세배를 드림으로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 높은 감사의 제목이 있고, 크고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조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안녕과 평안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지혜를 가지고 삽시다.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잘될 줄 알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전부는 아닙니다. 잠언서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질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합시다.

2. 정직하게 삽시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17)고 했습니다. 우리말 가운데에도 “군자는 대로행(君子大路行)”이란 옛말이 있습니다. 이는 군자는 큰길로 다닌다란 뜻이 아니고 군자는 누가 보아도 당당하고 떳떳한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누가 보아도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 겸손하게 삽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18-19). 성 어거스틴은 사람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겸손한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약 4:10). 이 한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도록 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의 큰 명절 설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 있음이 큰 은혜요 복임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나누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 송 다 같 이

1절 :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2절 :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 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3절 :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 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후렴 : 오 신실 하신 주 오 신실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 하신 주 나의 구주

주 기 도 문 다 같 이

예배 후 교제 (새해 인사 및 덕담 나누기, 가족놀이)

설(구정)감사예배 지침

정월 초하루인 설은 '원단'(元旦), '세수'(歲首), '연수'(年首)라고도 부르며, 한자로는 '신일'(愼日)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간다."는 뜻이다. 묵은 1년은 지나가고 설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데, 1년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탓이다. 설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미리 마련해 둔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 새 옷을 설빔이라고 한다. 아침에는 가족 및 친척들이 모여들어 조상의 은덕에 감사를 드리고, 어른들께 순서를 따져 세배를 드린 후에 떡국(歲饌)을 먹는다.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주며 덕담을 나누고, 가족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한다.

- 지침

- 1) 가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둘러앉는다.
- 2) 가족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 3) 가족 가운데 어른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되, 서로 순서를 나누어서 참여하는 것도 좋다.

2018년

설(구정) 감사
가족 예배 순서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교회